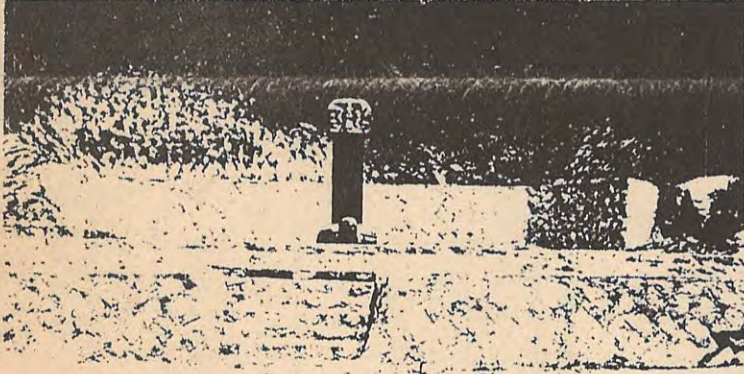


忠烈公神道碑閣 建立 看 敷地 넓히고 造景事業 完了

安東郡 祿轉面 九松洞에 奉
建한 忠烈公神道碑는 一九七
一年十一月二十六日에 建立
하고 享祀와 아울러 除幕式을
舉행한 바이다.

忠烈公神道碑는 高麗 忠宣
王의 命에 依하여 安東에 建立
하였으나 歲久年深하고 數百年
이 흐르는 동안에 戰亂이 자주
있어 어느 時代에 滅失되었는
지 알길이 없고 다만 後係들은
數百年 동안 神道碑 建立에 대
한 念願이 있어도 이루지 못하
였다.

一九六八年에 安東金氏 大宗
會가 創立되어 宗論을 交換할
수 있는 機構가 생기자 一九七
一年 五月부터 神道碑 建立에
對한 문제가 擡頭되고 뜻있는
人土들의 獻誠金으로 修葺하고
華麗한 堅碑의 工事を 完工하
였다. 그러나 그후 二〇年의 세



整地(移建)後의 神道碑

월이 지나가도록 碑閣을 建立
하지 못한 안타까움은 多年間
의 議題이며 宿願事業으로 남
아 있었다.

이제 여러가지 事情도 있었
지만 接道區域이란 嚴格한 規
制가 複合的인 要因이었다. 그
동안 關係要路에 建設도 하고
正式으로 申請도 해왔으나 道
路에서 五M에 不過한 場所에
서 接道區域 一四M를 벗어나기
는 어렵고 현재는 移建할 計劃
까지 세워 보았지만 뜻대로 되
지 않았다. 그러던중 最近구역
一四M가 五M로 短縮되면서 부
터 碑閣建立의 寺畵이 보이기
시작했고, 後側의 山을 깎아 場
所를 넓히고자 하였으나 여
기에는 山林 損許可라는 障
碍가 있어 安東郡 當局에 다시
正式書類를 提出하였으나 山林
保護區域이란 장벽이 또 가로

막고 있어 目的을 達成하지 못
하였다.

이에 대해 大宗會에서 選任
한 有司 光德(翼元公派)宗親은
해를 거듭하면서 艱難인 교섭
과 安東郡 山林課에 勤務하는
保護係長 朱東(翼元公派)宗親
의 妙方으로 正式許可를 얻어
五月初旬에는 整地와 移建作
業을 끝마치고 회손부위의 造
景도 훌륭하게 이루어졌다. 그리
고 七月十五日부터 시작한 碑閣
建築도 이제 마무리 段階에 到
達하였으며 丹靑工事も 아울러
進行中이다.

이제 우리 宗親 모두가 渴望
하는 宿願이 成就되어 오는 十
月 忠烈公 先祖 享祀時에는 二
十年이 가깝도록 風霜雨露를 견
디어 온 神道碑의 새로운 모습
을 敬虔하게 拜觀할 것이다.

農學博士
金用植
一九五一年生

教育學博士
金景植
一九三八年生

圓光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
課程을 履修하고 教育學博士學
位를 取得後 現在 全州大學校
師範大學 및 全州教育大學 講
師로 在職中임.

서울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
課程을 履修하고 農學博士學
位를 取得後 現在 嶺南大學校
農畜產大學 造景科 教授로 在
職中임.

一九八九年 度 大宗會 定期總
會는 지난 四月 三〇日 上午 一
時부터 서울·鍾路區 崇仁洞
所在 東廟公園內에서 盛大히
舉行하였다. 三百餘 宗親이 參
席한 이날 總會는 明會會長의
“祖上을 尊崇하고 宗親間에 親
睦을 돈독히 하자”는 多情한 開
會辭로 始作, 過年度 決算報告
와 本年度 豫算案을 審議 滿場
一致로 通過시켰으며 아울러 刻
苦勤勞에 依하여 宗門에 榮
光을 안겨준 三三三의 博士에게
祝賀牌를 贈呈하였다.

祝賀牌 받은
博士 일곱분들

經營學博士
金元公派
一九三八年生

仁荷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
課程을 履修하고 經營學博士의
學位를 取得, 現在 世宗大學校
觀光經營學科 教授로 在職中임.

經濟學博士
金在惠
一九四三年生

大司成公派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를 卒業後 美國 펜실바니아 대
學院에서 博士課程을 履修하고
應用經濟學博士學位를 取得하
고 現在 海運産業研究院 研究
要員으로 在職中임.

文學博士
金興會
一九五七年生

美國 유타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課程을 履修하고 工學博士
學位를 取得.

經營學博士
金淑應
一九五六年生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課程을 履修하고 經營學博
士學位를 取得後 現在 雙龍投
資 財團에서 投資分析部
首席研究員으로 在職中임.

醫學博士
金應
一九五〇年生

延世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
課程을 履修하고 醫學博士學
位를 取得後, 延世大學校 牙
醫 應聘員에 在職中임.

理學博士
金寬應
一九五一年生

西江大學校 大學院에서 有機
化學에 관한 博士課程을 履修
하고 理學博士學位를 取得, 現
在大田研究團地化學研究所有
機化學研究所 유기화학 연구실
에 在職中임.

經營學博士
金泰雄
一九五六年生

미국 피두大學校 大學院에서
博士課程을 履修하고 經營學博
士學位를 取得한 후, 現在 成
均館大學校 經營學科 教授로 在
職中임.

經營學博士
金泰正
一九五三年生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電子工
學科를 卒業한 후 美國 미시간
大學에서 博士課程을 履修하
고 工學博士學位를 取得後 現
在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電子
學科 教授로 在職中임.

工學博士
金泰正
一九五三年生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資源工
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코로라
도嶺南大學校 大學院에서 博
士課程을 履修하고 資源經濟學
博士學位를 取得, 現在 서울大
學校 工科大學 資源工學科 教
授로 在職中임.

89 大宗會定期總會盛了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金鳳
印刷人 金金鳳

發行處
서울·東大門區 慶洞 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營口處: 010963-31-051311
私書函: 서울 清涼洞 137號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
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
는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
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
는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工學博士
金春鎬
一九五七年生

西江大學校 大學院에서 化學
工學에 對한 博士課程을 履修
하고 工學博士學位를 取得後
現在 韓國動力資源研究所 先任
研究員으로 在職中임.

經濟學博士
金泰由
一九五一年生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資源工
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코로라
도嶺南大學校 大學院에서 博
士課程을 履修하고 資源經濟學
博士學位를 取得, 現在 서울大
學校 工科大學 資源工學科 教
授로 在職中임.

正義公派 臨時總會

正義公派 宗會에서는 緊急事項을 討議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臨時總會를 開催코저 하오니
隣近宗親과 相互連絡하시어 많이 參席하시기 바
랍니다.

- 다 음
- 日 時: 1989年 8月15日 午前 11時
 - 場 所: 安東金氏大宗會 會議室
 - 案 件: 1. 任員選出 2. 其他事項
1989. 7. 15
安東金氏正義公派宗會長 松 默白

書雲觀正公派 派譜刊行 公告

書雲觀正公派에서는 去 1月15日 總會에서 派譜刊
行에 對한 議案이 可決되어 지난 3月부터 收單을
接受中이온바 아직까지 納單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磨勘日까지 無漏 提出하심으로서 漏譜됨이 없도록
族親間에 相互連絡해 주시기 仰望하나이다. 그리고
詳細한 事項은 다음 連絡處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收單接受處 및 連絡事務所
서울: 東大門區 祭基洞 1111-109 화생당약방
金元永 電話: 966-5352
安養市 飛山洞 541-53 金圭冕
電話: 0343-49-5870
 2. 收單接受 마감: 1989年 7月 31日
安東金氏書雲觀正公派譜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學永 白

提學公派 派譜刊行 公告

提學公派에서는 派譜刊行이 時期的으로 適切
하다는 宗論에 勘案하여 이를 協議한바 滿場
一致로 完議를 보았기에 이를 公告하오니 提學公
派 宗親께서는 다음에 依하여 漏譜됨이 없도록
相互連絡해 주시기 仰願하나이다.

- 다 음
1. 收單 마감일: 1989年 8月 末日限
 2. 收單接受處: 安原郡 並川面 佳田里
提學公派宗約所
電話: 0417-61-9558
1989. 7. 15
提學公派宗會長 金相哲 白

전 화 : 996-5352

宗門의 現場

京畿道 · 江華郡 翼元公派 門中編

황해의 거센 파도가 대소군
도에 놀라서 숨을 죽이니 정기
만의 바다는 잔잔하다. 서울에
서 一三〇여리, 고려의 옛 서울
개성까지는 그 절반의 거리에
위치한 강화도는 정기만에서 유
일하게 큰 섬으로 육지와는 지
호지간이다. 그래서 강화는 옛
부터 애환의 역사를 지녀왔고
국가의 요충지로 주요시한 곳
이다.

서울의 신촌(마포구 노고산
동)에는 <강화행> 전용 정유장
이 있어 매 一〇분 간격으로 시
외버스가 출발한다. 번잡하고
소음에 지친 시가지에서 벗어나
먼 조목의 평원은 분향기를 뽐
어주고 雲海같이 요동하는 비
닐하우스 속에는 풍년의 씨앗
들이 활기차게 자란다.

金浦 정유장에서 몇 사람의
승강객이 교체되면 버스는 무
슨 시간에 쫓기는지 西北方을
향해 숨가쁜 패주로 직행한다.
서울에서 주행시간은 한 시간
남짓하면 江華大橋에 이른다.
교량의 길이는 약 四·五백M
좁은 해협의 물결은 잔잔하여
거울 위를 달리는 느낌이다.

강화읍의 도심지는 소도시의
풍경에 충실하다. 二·三층의
건물들이 즐비하고 인삼이나
수산물에 관계된 간판들이 심
상찮게 눈에 띄는 것은 이풍
정의 하나이다. 역사의 고장으로
알려진 강화는 풍물이 아름
담고 사적지가 많으며, 전설로
이어진 靈山神話를 찾는 風流
墨客들이 남긴 주옥같은 걸작
도 적지 않다.

海山深處一扁舟
行到華山興未休
自古金湯能害德
移都此地是誰謀

(譯)
바다 산 깊은 곳에 한 조각 배
타고 / 華山(강화)에 도착하니
흥이 그치지 않네 / 옛부터 金湯
(부귀영화)은 능히 德을 해치는
데 / 이 땅에 도읍 옮긴 것 누구
의 죄였는가?

(고려 충정왕때 정당문학 韓
山君 李穀의 詩)

玉輦輶幸此城
漁樵猶說舊天京
洞雲慘淡疑寒色
官水潺湲咽舊聲

(譯) 玉輦(임금의 가마)이 기
구하게 이성에 거동하여서 / 어
부와 나무꾼도 아직 옛 서울이
라네 / 골짜기에 잠긴 구름은 쓸
쓸하게 찬빛이 서리고 / 궁터에
서 흐르는 물 줄줄거리며 옛소
리 무매이네

(고려말기의 典理判書 文正
公 許錦의 詩)

修程通海道 古館倚雲峰
夜靜塵喧息 簾虛月色侵
床風清細細 庭樹綠陰陰
聽得居民話 昇平正復今

(譯) 길을 닦으니 바다로 통
해 있고 / 옛 館은 구름 봉우리
의 지렛대 / 밤이 고요하니 시끄
러움 없어지고 / 처마끝이 비어
서 달빛이 스며드네 / 침상에 마
람 맑게 불어 산들거리고 / 들
에선 나무 푸르러 거닐었구나
/ 문득 여기 사는 백성 말들로
니 / 태평시대가 바로 지금이라
네

(李朝 세종때 左議政 鐵山府
院君 文靖公 李原의 詩)

이렇게 先賢들이 읊은 江華
의 題吟 중에서 대표작이라 할
만한 몇몇을 실어 다시금 강화
의 역사적 애환을 더듬어 본다.
조선 강화라면 摩尼山이요,
그 정상에 있는 斬城壇을 빼놓
을 수 없다. 단군 성조께서 천
하를 다스리실 때 제사를 지
냈다는 斬城壇의 옛터는 지금
도 개천절에 단군께 제향을 올
리며 전국 체육대회를 열어
聖火의 재화는 이곳에서 행한
다. 또 단군께서 아들 三姓제
를 시켜 쌓았다는 三郎城은 傳
燈山에 있다.

강화에는 섬으로서 유일하
게 고려의 왕릉이 많은 곳이다.
고려의 高宗은 蒙古의 침공을
피해 개성을 떠나 이곳에서 죽
으니 그 陵이 弘陵이며, 왕비
또한 坤陵이다. 그밖에 熙宗의
頤陵과 元宗王妃 順敬太后的 嘉

陵이 강화에 있다.

고려의 조정이 江都에 있을
때 忠烈公(郭)方慶께서는 협
소한 청사에서 근무하면서 후
병환 중이라도 휴가를 고향지
아니하느라 官紀를 바로 잡아
그 剛風勁節을 조야에 들렸으
며 襄仲孫이 抗蒙을 구실삼아
왕실에 반역하고 三別抄의 난
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곳이었
다. 그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는 世子·人君·妃嬪들이 강
화에서 난을 피하였고 丙寅·辛
未의 洋擾때는 강화에서 방이
하느라 王京이 무사하였다.

이 강화에 安東金氏가 입향
하기는 꽤 오랜 일이며 다만의
원공의 후손인 鐸, 綱의 양공이
始居한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이조 成宗때 左議政을 지낸
文靖公(郭) 應의 증손인 郭彦
沉은 진사로서 문과에 급제하
여 형조참판을 지내고 영의정
에 추증되었고, 공의 第二子 璠
은 포천현감으로 이조참판에 추
증되었으며, 抱川公의 第二子
忠建은 宣務郎으로 三男을 두
었으니 鎰, 鐸, 綱인데 강화로
落鄉하기는 鎰, 鐸의 兄弟로서
그후 三百年 동안 代를 이어
살아왔다. 그런데 이러한 名門
勢家の 후예가 왜 이곳에 와서
기지를 잡고 자손부식의 터전
을 삼았나 하는 사실은 확실하
지 않으나 鎰, 鐸, 綱의 후손이
전하는 바 없어 筆者는 나름대
로 추리하고 假想의 念을 가져
본다.

一六五二(孝宗 2)에 안동
김씨는 서리를 맞는 화변이 있
었다. 병자호란때 도원수를 지
내고 領議政에 오른 洛興府院
君(郭) 自點이 西人問의 알뜰
적인 정동에 휘말려 역적의 누
명을 쓰고 처형되자 공포에 싸
인 近親들은 멸문의 화를 면하
기 위해 四方으로 흩어져 자취
를 감춘 사실은 세상에 알려져
있다. 이때 自點公과 鎰, 綱은
三從叔姪間이라 足上之火를 피
해 家財를 버리고 바다를 건너
강화에 잠입하여 산간현곡을 찾
아 숨을 죽여가며 농토를 개간

하고 바다에 그물을 던져 반찬
을 얻으면서 無常한 세월을 스
스로 달래며 살아온 과거가
三百年의 세월이 흘렀다고 조
심스레 평가해 본다.

지금 이 門中은 三個面에 분
포되어 있다. 良道面 道場里에
는 鐸公의 후손이 집성 세기하
고 華道面 興旺里와 如此里, 그
리고 內可面 오상리에 鎰公
의 후손이 살면서 門戶를 열고
있는데 一九七九年 大同譜 編纂
때만 해도 一五〇여 세대가 수
록되었으나 문명의 적도에 힘
입어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의
주체가 상업쪽으로 기울면서 농
· 어촌의 청장년이 도시로 전
출하는 의욕을 조장하고 또 유
치하는 요인이 되어 지금은 삼
개면에 七〇여 세대가 조상의
業을 이어받아 農業이나 商業
에 종사하고 있다.

이 宗中이 강화로 낙향한 후
버슬길도 자연히 막혀서 그후
로 출중한 인물이 나지는 못하
여도 勳祖의 후예답게 門閥의
체통과 긍지를 잃지 않고 道德
과 禮節에 결함이 없이 오늘날의
世代를 이어가고 있다. 강화에
는 이 문중 외에도 參議公(郭)
彦泊의 아우 副護軍公(郭) 彦
沉의 후손이 강화읍을 중심으로
로 세거하며 吉祥面에는 義원
공파의 牧使公(郭) 碩의 후손
과 典書公(郭) 成牧의 후손이
대를 이어 사는데 강화에 전체
안동김씨는 二백 세대가 넘는
다.

강화 출신으로 서울 도봉동
에 거주하는 仁植(一名 銀淳)
씨는 부호군공 후손으로 강화
의 종친간에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崇祖의
기풍을 더욱 조성하기 위하여
宗親會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
킨 나머지 一九八〇년에 安東金
氏 江華郡宗親會를 결성하고會
長으로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仁植會長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운영의 妙를 창출
하고 이를 보좌하는 부회장이
로 강화읍에 聖植·양도면에 在
한 자리에 在學·화도면에

翼元公派

金在洪

忠州市 교현동 四九二-1
전화: 四三-八六一五

密直司使公派

金榮應

서울 西大門區 弘濟三洞
二七〇-一一二

翼元公派

金在環

서울·東大門區
祭基洞 八六二-六八九
경동미주아파트 A동 九一〇

按廉使公派

金永振

서울·城東區 九宜洞 22-27
전화: 四四六-一〇四五

安東金氏清州市宗親會

會長 金允會

清州市 雲泉洞 一六六三
電話: 六四-一〇二七

安東金氏清州市宗親會

會長 金允會

清州市 雲泉洞 一六六三
電話: 六四-一〇二七

大司成惕若齋 諱九容編

대사성공(大司成公)의 휘는 구용(九容)이며, 자(字)는 경지(敬之)니 초휘(初諱)는 제민(齊民)이라 하였고 호(號)는 적약재(惕若齋)이다. 서기... 八년(高麗忠肅王 七) 무인(戊寅)十一月一日에 출생하니 삼중대광 평장사(三重大匡 平章 事)를 지내고 상락군(上洛君)에 습봉(襲封)된 휘 묘(堯)의 장남이며, 어머니 여흥민씨(驪興閔氏)는 찬성사(贊成事)와 진원관(進賢館)대제학(大提學)을 지낸 문온공(文溫公)의 딸이다. (閔忠平)의 따님이다. 공은 용모가 단아하고 재예가 비범하여 십세(十歲)에(恭愍王)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또 왕(王)이 명(命)하여 모란시(牧丹詩)를 짓게하니 여기에서 수위(首位)로 뽑혔다. 이로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기특하게 여겨 산원(散員)이 되었다. 또十八세에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덕영부주부(德寧府注簿)에 제수되고 그후로 여러번 승진해서 민부의랑(民部議郎)이 되고 성균직장(成均直講)을 겸하였다.

名祖列傳 (6)

공이 후학(後學)을 육성하고 이를 면려(勉勵)할제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을뿐 아니라 비록 집에서 한가로이 있을 때라도 모든 선비들이 학문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공은 일찍부터 포은 정몽주(圃隱鄭夢周)·도은 이충인(陶隱李崇仁) 같은 학자들과 교유(交遊)하면서 성리학을 창도(倡道)하였고, 특히 해서(楷書)를 잘 썼으며 도학과 문장은 세사람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一三七五(고려 목종 元年)乙卯에 공이 삼십세로서 삼사좌윤(三司左尹)에 올랐다. 이때 고려의 정세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전해(一三七四)甲寅에는 二십三年 동안이나 왕좌(王座)를 지켰던 공민왕(恭

道傳)·권근(權近) 등과 더불어 어도당(都堂)에 진정하는 상서(上書)를 올려 말하기를 「만약에 이 사신을 마저 드린다면 온 나라 신민이 모두 난적(亂賊)의 죄에 빠질것인 즉 후일에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현몽(玄夢)·恭愍王)을 뵈을 것입니까?」 하였다. 그러나 경복궁(慶復宮)과 이인임(李仁任) 등은 그 상서문을 받지 아니하고 퇴각시켰다. 이에 격분한 간관(諫官)이 첨(李愔)과 전백영(全伯英) 등이 이인임의 죄를 논박하고 「이인임을 처형하라」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인임으로 말미암아 간관들이 유배(流配)되고 또 「구용(九容) 등」과가 자기를 모함한다」하여 이충인 등과 함께 귀양을 보내니 공은 주주로 유배되었다가 얼마후에 여흥(驪興)·지금의驪州)로 옮겨졌다. 이때부터 공은 세사(世事)를 한탄하고 시(詩)와 술로 자오(自娛)하면서 지냈다. 특히 여주는 공의 외가(外家)가 있는 곳이라 당(堂)을 지어 살면서 「友友堂」이라 하였다. 여지승람(여주목 조輿地勝覽驪州牧條)에 의하면 「목우당은 영천현(寧川縣)에 있는데 적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이 여주에 귀양와 당을 지었다」고하였고, 문은(牧隱)이 색(李穡)선생의 기문(記文)에 의하면 「영가(永嘉) 김경지(金敬之)·公의字)씨가 그 당(堂)號)을 사우(四友)라 하였으니 대개 강절 선생(康節先生)의 눈(雪)·달(月)·바람(風)·꽃(花)을 취함이라」하고 여기에 강(江)과 산(山)을 더해서 「유우(六友)라 했다」하였다. 공이 이곳에서 六년간 유우와 더불어 벗하면서 많은 시작(詩作)을 남겼으니 그 주옥(珠玉)같은 걸작이 적약재집(惕若齋集)으로 엮여 세상에 전하고 있다.

賴有伊庵遺跡在 沈流亭上枕書眠 「譯」 멀리 남국에서 높고 있음이 이미 三百年인데 / 깃발 올림에서 金沙로 옮겨졌다 / 伊庵의 유적이 있음을 의지하고 / 침류정 위에서 책을 베고 자누나 鑿池栽柳構茅亭 蒼翠藏藏不肯晴 忽破銀花月夢 綠陰時有一鸚鵡聲 「譯」 못을 파고 벼를 심고 초가정자 지으니 / 푸름이 축축하여 개이러 하지 않네 / 문득銀毫承政院이나 翰林院에 놀던 花月의 꿈을 깨치니 / 녹음속을 가느라니 가끔 피리리소리 들리네. 「譯」 꿈은 아직도 봉황지를 감도는데 / 집을 묻고 밭을 구하려고 푸른 물가를 찾았네 / 구구하게 姓字까지 감출 것도 없구나 / 새와 물고기 초목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으니 扁舟短棹款柴門 雨夜還還水上村 爲問金沙何處在 一燈明暗隔林原 「譯」 조카배 짙은 노로 가지 사람문 두들기니 / 비오는 밤에 도리어 물위의 마을이 아득하구나 / 묻노니 金沙가 어느 곳이요 / 등불이 숲을 지난 언덕에 깜박거리네 위의 詩는 東國輿地勝覽驪州條에 나오는 沈流亭題詩로서 大司成公의所作이니 아마 여주의 調所에서 처절한 심정을 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왕(禔王)은 그 七년에 공을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로 불렀다. 이때 비로소 공이 상서(上書)하여 말하되 「지금 왜구(倭寇)가 침입하여 사방이 적을 만나 싸움이 쉬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 업(業)을 잃고 기근(飢饉)으로 유리하여 세금과 병역을 조

하고 드디어 잡아 경사(京師)에 가서 황제의 명을 받아 대리위(大理衛)로 귀양을 보냈다. 대리위는 중국의 남쪽지방 먼 곳이라 여덟달 시달린 노동(勞苦)의 피로와 심려 끝에 병을 얻어 로주(羅州)의 영영현(江寧縣) 江門站에서 별세하니 향년 四십七세이며 때(年)는 一三八四(甲子) 七월십 일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왕은 「조 계룡이 매의 말을 잘못 전했다」하여 이를 귀양보냈다. 대사성 공계서는 사창(詞章)에 능하고 시(詩)와 부(賦)는 절세(絶世)의 걸작을 남겼으며 적약재집(惕若齋集) 외에 「공의 시가 남아있다. 만리이역에서 세상을 마친 공의 시신을 운구(運柩)할 길에 있어 초혼(招魂)의 의식을 거쳐 의관장(衣冠葬)으로 개성(開城) 선종사(禪興寺) 근방의 불당현(佛堂峴)에 장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一八九八(戊辰)에 후손들에 의해 포천군 장수면(抱川郡 蒼水面 可養里)에 설단(設壇)하여 一년 一차의 제향을 올리고 있다. 공이 아들 三형제를 두었는데 명선(明善)은 문과에 급제하여 판결사(判決事)를 지냈으며 지금 후손이 없고 명리(明理)는 성천 도호부부사(成川都護府副使)를 지냈는데 자손이 번창하여 많은 사환(仕宦)과도 덕 문장이 배출되어 그 후손은 포천의 장수면과 음성(陰城 甘谷面)·전북 우구군(沃溝郡 立元面)과 대구(大邱)를 중심으로 해서 하양(河陽)·영천(永川)·의성(義城)·진주(晉州) 등지에 세거(世居)하며 특히 황해도 수안군(遂安郡)과 평북박천(平北博川) 일대에는 수백호(數百戶)가 살고 있으나 지금은 소식조차 알길이 없어 종족간의 비애를 안고 있다. 또 명윤(明允)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좌승지(左承旨)를 지냈는데 후손은 그리 많지 않다.

「내가 너희 나라 일에 매양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는데 너희 나라에서는 어찌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아니하는가?」 하고 불평을 하였다. 이 말이 조정(朝廷)에 들리자 우왕 一〇년에 공이 행례사(行禮使)가 되어 국서(國書)를 받들고 접하여 백금 백양(白銀 白楊)새모시와 삼배 각각 五〇필을 가지고 요동에 이르렀다. 그러나 매의 말은 어디까지나 속임수였다. 요동 총병(遼東總兵) 반경(潘敬)과 엽왕(葉旺)이 매와 더불어 하는 말이 「인신(人臣)은 의리상 사교(私交)가 있어 아니되는데 어찌 그렇게 할수 있는가?」

하고 드디어 잡아 경사(京師)에 가서 황제의 명을 받아 대리위(大理衛)로 귀양을 보냈다. 대리위는 중국의 남쪽지방 먼 곳이라 여덟달 시달린 노동(勞苦)의 피로와 심려 끝에 병을 얻어 로주(羅州)의 영영현(江寧縣) 江門站에서 별세하니 향년 四십七세이며 때(年)는 一三八四(甲子) 七월십 일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왕은 「조 계룡이 매의 말을 잘못 전했다」하여 이를 귀양보냈다. 대사성 공계서는 사창(詞章)에 능하고 시(詩)와 부(賦)는 절세(絶世)의 걸작을 남겼으며 적약재집(惕若齋集) 외에 「공의 시가 남아있다. 만리이역에서 세상을 마친 공의 시신을 운구(運柩)할 길에 있어 초혼(招魂)의 의식을 거쳐 의관장(衣冠葬)으로 개성(開城) 선종사(禪興寺) 근방의 불당현(佛堂峴)에 장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一八九八(戊辰)에 후손들에 의해 포천군 장수면(抱川郡 蒼水面 可養里)에 설단(設壇)하여 一년 一차의 제향을 올리고 있다. 공이 아들 三형제를 두었는데 명선(明善)은 문과에 급제하여 판결사(判決事)를 지냈으며 지금 후손이 없고 명리(明理)는 성천 도호부부사(成川都護府副使)를 지냈는데 자손이 번창하여 많은 사환(仕宦)과도 덕 문장이 배출되어 그 후손은 포천의 장수면과 음성(陰城 甘谷面)·전북 우구군(沃溝郡 立元面)과 대구(大邱)를 중심으로 해서 하양(河陽)·영천(永川)·의성(義城)·진주(晉州) 등지에 세거(世居)하며 특히 황해도 수안군(遂安郡)과 평북박천(平北博川) 일대에는 수백호(數百戶)가 살고 있으나 지금은 소식조차 알길이 없어 종족간의 비애를 안고 있다. 또 명윤(明允)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좌승지(左承旨)를 지냈는데 후손은 그리 많지 않다.

辯護士 金泰祚 都評議公派 釜山市 西區 富民洞 1街 8-4 電話:(事) 244-4001~2 (自) 413-0001

安東金氏大宗會 理事 郡事公派 金元鏞 서울·江西區 禾谷洞 二七二

按廉使公派 金璇會 清州市 대성동 七七 電話:(一〇四三) 五六一八二六九

大司成公派 金在熙 서울·鍾路區 社稷洞 311-35 電話: 735-5635

海南郡 北一面 방산리 62

신라(新羅) 석탈해왕(昔脫解王) 九(漢明帝永平八) 서기 59년(乙丑) 월달이 어느날 밤이었다. 한숨 잠에서 깨어난 탈해왕은 종일토록 정무에 시달린 머리를 시원하게 씻고서 일어난다. 대궐의 아랫마루에서 잠고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찬바람을 쏘이고 있었다. 아직은 이른 봄이라 밤바람은 차가웠으나 왕은 움직일 줄 모르고 찬란한 별들의 신비함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때 어디서 닭우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물론 이때만 하더라도 신라의 서울 안에 닭이 없는 바도 아니라서 새벽이 되면 이집 저집에서 닭이 울기 시작하면서 우는 닭소리가 요란 울리고 들리는바 그 닭우는 소리는 인가가 없는 시냇(始林) 쪽이었다. 왕은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태고연(太古然)한 노모만이 창창(蒼蒼)한 숲속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 동안에 어느덧 동이 트고 날이 밝기 시작했다.

왕은 호공(公)을 불렀다. 호공은 왕이 가장 사랑하며 신임하는 신하로서 그 지위도 높았다.

「호공은 들어라! 아까부터 저 시냇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속히 가서 그 연유를 소상히 알아오라!」

「예!」

하고 호공이 시냇 쪽으로 달려갔다. 아직은 완전히 밝은 시각은 아니었다. 그런데 한나 무가지에서 이상한 광채가 찬란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호공이 점점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았더니 한 나무가지에 금빛으로 눈이 부시는 조그마한 개하리가 걸려있고 그 밑에는 흰닭(白鷄)이 울고 있었다. 호공은 이러한 광경을 자세히 목도하고 대궐로 달려갔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왕의 앞에 국공의

자세로 이 사실을 고하였다. 왕은 대단히 기뻐하였다. 왕의 생략(은)은 못사람이 따르지 못하였다는 나라는 무슨 상서로운 정사가 생길 것이라고 스스로 기뻐하였고 하루는 모든 군신은 한 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하였다. 이 아이는 모든 아이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니 이름을 알지(閼智)라 하겠다. 그리고 금독(金獨)에서 나왔으니 성(姓)을 금(金)으로 하겠다.」

「지당하오이다!」

모든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려 「천진세(千歲)」를 외치면서 축하하였다.

「정들은 또 들으라! 이 아이는 시냇(始林)에서 닭이 울어서 출생을 알렸으니 이것을 어찌 괴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시냇을 이제부터 개림(鷄林)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 하날의

始祖誕降說(1)

「이것! 이것!」

왕은 말문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였고 모든 신하들은 눈만 둥글게 뜨고 그저 입만 벌려서 서로서로 쳐다만 볼 따름이었다.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었다. 개림을 아뢰고 더욱 정사(政事)에 힘을 기울였다.

알지(閼智)는 장성해서 태자(太子) 강조(康造)의 딸과 혼인케 하고 음직(陰職)을 자태는 가히 夫人(夫人)이라 칭하는 벼슬이 태보(太保)에 올랐으니 태보공금(太保公金)으로 불리게 되었다.

왕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좌우의 경(卿)들은 들어라! 이분이 가락계 김씨(金海金氏)를 제외한 모든 김씨의 시조(始祖)가 되시며 그 후손은 이제 四백여 본(本)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니 수효는 가히 천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래서 아이는 궁중에서 특별한 양호를 받으며 자랐고, 四세가 되면서부터 날이 갈

이같이 기록되어 있고, 또 경주(慶州) 송해전(崇惠殿) 앞에는 경순왕 유해비(敬順王遺墟碑)가 있는데 그 비문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로 역사의 발전(訛傳)을 바로 잡으려 하고 과학(科學)은 급진적으로 발달된 현시의 사람들이 어찌 이를 믿으리요? 그래서 김 문연(金文演)·安東人씨는 그가 저술한 「원류고증(源流考證)」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태보공이 금독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는 탈해왕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진흥왕(眞興王) 6년에 처음으로 기실부(居漆夫) 등에게 명하여 국사(國史)를 편찬케 하였는데 그때 태보공이 탄생한 후 이따기 4백 4십년이 지난 때이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기록된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문헌(文獻)의 고증을 얻기 어려웠고, 또 진흥왕 당시는 오직 불도(佛道)만 숭상하던 시대라 더욱이 거칠부 같은 고승(高僧)의 학문이 「신인(神人)의 탄생은 범인과 다르다」

뜻으로 나라에서 서로는 힘을 주는 것이니 국호(國號) 또한 계림으로 할 것이니라」

왕의 말에 모든 신하들은 「당함」을 아뢰고 더욱 정사(政事)에 힘을 기울였다.

알지(閼智)는 장성해서 태자(太子) 강조(康造)의 딸과 혼인케 하고 음직(陰職)을 자태는 가히 夫人(夫人)이라 칭하는 벼슬이 태보(太保)에 올랐으니 태보공금(太保公金)으로 불리게 되었다.

왕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좌우의 경(卿)들은 들어라! 이분이 가락계 김씨(金海金氏)를 제외한 모든 김씨의 시조(始祖)가 되시며 그 후손은 이제 四백여 본(本)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니 수효는 가히 천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래서 아이는 궁중에서 특별한 양호를 받으며 자랐고, 四세가 되면서부터 날이 갈

는 우화(寓話)를 남겼을 것이므로 옛날 중국의 고사(故事)에도 은(殷)나라 시조(始祖)의 어머니 간직(簡狄)이 꿈에 제비알을 먹고 설(僞)을 낳았다. 설(僞)이나 주(周)나라 시조의 어머니 강원(姜嫄)이 큰 사람의 발자국을 밟고서 후직(後稷)을 낳았다는 말이 있으니 우리 동방에서도 흰닭이 금독에서 울었다는 전설(傳說)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고, 고려때 김부식(金富軾)은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지을 때 다만 전설로 와전된 사실아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타파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무릇 사람이 생겨난 근원을 시조(始祖)로 소급溯及해 보면 이는 화생(化生)된 것이고 이미 종족이 있게 된 후로는 단연코 화생할 수 없다는 것은 생리학(生理學)의 해석으로도 확신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上洛의 血脈 金福星女史 三億財產 育英財團設立

지난 88년 4월 28일,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산1번지 전주교 墓苑의 양지바른 언덕에는 故 殷煥卓公의 墓碑 敍보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東星中·高等學校(서울·종로구) 殷煥卓 90-1-7에서 현충한 이 보비 제막식은 미망인 金福星(初名 永嬌)여사의 오랜 숙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김복성 여사는 안동김씨도 평의공파가 六백년동안 세거한 정복의성군 집종면 사촌동에서 출생해서 전통적인 儒家의 규문에서 성장하여 八세에 백여리가 넘는 군의군 효령면 불로동 殷煥卓氏와 결혼하니 그

함 없는 속에서 시부모를 효양하고 봉재사와 집번개의 도리가 禮道에 어긋남이 없어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러던중 夫君殷氏는 직지 않은 재산을 相續받아 大邱에서 사업을 경영하였으나 六·五의 전란으로 실패하고 九七〇년에 五二歲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부터 晩得의 遺子 殷煥君을 강보에 싸고 업고 上京하여 자립의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淸洞에 집을 마련하여 하숙생 20여명의 뒷바라지를 혼자 도맡아 하였고, 헌집을 싸게 사서 몸소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고 페인트로 벽을 칠해서 轉賣했으며 허술한 택지를 시서 건축할 때는 나약한 등으로 벽돌을 지고 시멘트의 배합을 하면서 보다 견실하게 지어 팔곤 하여 팔다보니 夫父夫라는 칭찬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조소를 받는 일도 적지 않았으나 繼衣惡食으로 재산의 증식이 유일한 재미로만 생각하고 절약한 끝에 여주와 부친에 수천평의 土地를 매입 취득하였고, 독산동(고개)에 三층 양옥을 건립해서 賃貸까지 하게 되었고 유일의 樂으로 양육한 東煥君도 탈없이 자라서 현재 大學校 재학중이다. 그러나 女史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한 것은 「이것이 모두 남편의 재산을 말아 늘린 것이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남의 유산대로 욕망사업에 써야 한다」 하였다.

이제 女史는 七〇의 고개를 바라보면서 평소 품은 뜻을 펴 때가 왔다. 여주의 땅을 매각한 三億의 巨金을 아끼지 않고 한국 카톨릭 교회 金壽煥 주교에게 기탁, 동성 중·고등학교에 「殷化育英財團」을 설정하기 위해 이르렀으니 「殷化」는 仁의 遺志를 기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학교재단 측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龍仁의 전주교 墓苑의 개묘하고 양지바른 곳에 墓域을 허급하고 墓碑를 獻呈하였다.

이제 女史는 七〇의 고개를 바라보면서 평소 품은 뜻을 펴 때가 왔다. 여주의 땅을 매각한 三億의 巨金을 아끼지 않고 한국 카톨릭 교회 金壽煥 주교에게 기탁, 동성 중·고등학교에 「殷化育英財團」을 설정하기 위해 이르렀으니 「殷化」는 仁의 遺志를 기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학교재단 측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龍仁의 전주교 墓苑의 개묘하고 양지바른 곳에 墓域을 허급하고 墓碑를 獻呈하였다.

이제 女史는 七〇의 고개를 바라보면서 평소 품은 뜻을 펴 때가 왔다. 여주의 땅을 매각한 三億의 巨金을 아끼지 않고 한국 카톨릭 교회 金壽煥 주교에게 기탁, 동성 중·고등학교에 「殷化育英財團」을 설정하기 위해 이르렀으니 「殷化」는 仁의 遺志를 기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학교재단 측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龍仁의 전주교 墓苑의 개묘하고 양지바른 곳에 墓域을 허급하고 墓碑를 獻呈하였다.

都評議公派 金弘秀 서울·冠岳區 新林2洞 95-91	按廉使公派 金在斗 槐山郡 曾平邑 校洞 117	大司成公派 金英會 浦項市 港口洞 17 6統7班	서울特別市 政策諮問委員會 建設分科委員長 技術士 工學博士 金塔會 (都評議公派) 서울·江南區 驛三洞 六八二一五 전화·五六六一〇三五二
---	--	---	---



(文殊寺에서 계속)

권신의 집권은 몇번이나 개
혁이 거듭되었으나 삼별초의 세
력은 변하지 아니하였다. 최씨
의 집권하에 있던 삼별초가 김
준(金俊)이 최씨의 일가를 멸
망시킬 때는 이 삼별초가 발동
했고, 임연(林衍)이 김 준을
죽일때도 역시 삼별초의 행동
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다만
강한 권력의 그늘을 찾아 그 세
력을 유지했고 구주(舊主)에 대
한 은혜의 보답이나 충성심은
아랑곳없이 강자의 편에서 처
부수었다. 이러한 삼별초가 이제
완전히 주인을 잃게 되었다.

임연은 반역의 원흉으로 국
왕을 마음대로 잡아 치우다가
세조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
인이 되어 울화병(鬱火病)으로
죽고 그 아들 유무(惟茂) 또한
정적(政敵)의 칼날에 이슬같이
사라져 버렸으니 임연의 휘하
에서 활동한 삼별초도 이에 따
라 웅망의 죄가(罪價)가 치루
어 질것에 대한 두려움과 몽고
의 대군이 개경(開京)에 주둔
하면서 강화도를 건너온다면 모
리 죽이리라는 기우(杞憂)에서
로잡혀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최후의 발악
단계에 돌입하고 말았다.

더욱이 김 지서(金之氏) 장군
이 압수해간 '명부'는 몽고군에
게 넘기리라'는 의혹 때문에 잠
시도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다
고 판단한 배중손과 노영희는
갑곶진(甲串津)과 초지진(草芝
津)·벽란정(碧欄亭)의 나루터
를 점령하고 본토로 탈출하려
는 문무백관의 가족과 모든 백
성을 잡아모았다.

이 끝내는 내란의 상태가 되고
말았으니 몽장(蒙將)인 두련가
(豆廉哥)나, 조평장(趙平章)도
삼별초의 토벌을 위해서 충동
준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
러나 고려의 군신(群臣)들은
"고려에서 발생한 사태는 고려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제 와서 극도로 악화
된 사태로 점점 번거롭게 진전
되는 현실에서 극력 반대할 수
있는 이유조차 없게 되었다.

삼별초가 최씨정권때부터 나
라가 몽고군이나 왜구(倭寇)의
침해를 받았을때 선봉에 나서
이를 격파하고 나라를 지키는
주력이 된 공로도 적지 않았으
나 이제 와서는 폭도로 변하고
반란군이던 오명을 받게 되어
잔인한 행동을 계속하는 이상
국왕이나 조정에서 이를 그대
로 방치할 수 없는 사정이었지
만 또 한편으로 일부의 관리나
서민들 중에는 삼별초의 처사
가 '당연한 일이다'고 생각하
는 사람이 없는바도 아니었다.

그러나 삼별초의 세력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가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이를 격파하지 않는 사
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루라도
속히 그들이 태도를 바꾸어 온
전한 자세로 기울어져가는 나
라를 재건하는데 함께 힘써 주
기만 바라고 있었다.

한편, 동명부(東寧府) 평양
에 머물고 있는 몽가독은 당장
에 군단을 동원해서 삼별초의
토벌에 나가고자 하였으나 여
기에는 김 방정(金方慶)이 버
티고 있으면서 대동강(大同江)
이남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으
니 삼별초의 반란군이 남쪽으
로 진로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
에 있었다.

배중손이 인솔하는 선단은 남
으로 남으로 내려가서 진도(珍
島)에 상륙하여 활동무대를 거
점으로 삼게 되었다. 진도에서
도가장 함준환(咸俊煥)을 보전하
고 왕을 구출하고 왕궁을 지어 승
화운(承化侯)을 왕좌에 앉
히고 문무백관을 임명해서 관부
(官府)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진도의 모든 백성들
을 선동하고 장정들을 징발해서
대오(隊伍)에 편입시켜 육지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육
지의 연안고을에 출몰하여 양
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백성을
잡아가서 전라도 일대는 수라
장(修羅場)이 되고 따라서 삼
별초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강
성의 일로만 걷고 있었다.

원종(元宗)은 참지정사(參知
政事) 신사전(申思僉)을 전라
도도적사(全羅道討賊使)로 삼
아 보냈으나 그는 나주에 이르
러 적이 출몰(出沒)한다는 말
만 듣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
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
었더니

배중손이 인솔하는 선단은 남
으로 남으로 내려가서 진도(珍
島)에 상륙하여 활동무대를 거
점으로 삼게 되었다. 진도에서
도가장 함준환(咸俊煥)을 보전하
고 왕을 구출하고 왕궁을 지어 승
화운(承化侯)을 왕좌에 앉
히고 문무백관을 임명해서 관부
(官府)를 조직하였다.

밖에 없다'고 억눌렀다.
두련가의 둔소를 방문하고 돌
아온 원종은 삼별초를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끝에
월 십 일에는 동명부에 있는
김 방정을 역직 추토사(逆賊追
討使)로 임명하고 7월 일에는
상정군(上政軍) 서균환(徐均漢)과
비서승(秘書丞) 반부(潘阜)·어
사(御史) 김광취(金光就) 등에
게 명해서 강화도의 창고에 남아
있는 양곡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하였다.

또 이어서 7월 십 일에는
두련가와 홍다구로 하여금 전
라(全羅)·경상(慶尙) 및 동계
(東界)·江原(江原)의 三道(三道)를
순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두련
가와 홍다구가 각도를 순시하
기 위해 남쪽으로 떠났다는 것
이 고려로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 대
책을 위해서 원종과 이 장용은
김 방정을 불러서 그의 견해를 물
었다.

「지금 삼별초가 취하고 있는
행위는 완전히 반항이며 앞
으로 일어날 그들의 장란은
예기하기 어려울만치 두렵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삼별초가 두렵고 무서운 것
이 아니고 다만 그때에 일어
날 몽고의 대책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몽가독은 당장이
라도 삼별초를 섬멸할 준비
를 갖추고 있고, 만약에 그들
이 출동한다면 삼별초도 끝
까지 대항할 것이며, 몽고는
몽고대로 잔인한 보복의 조
치를 취할 것이니 전라도 일
대의 백성들은 살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
단을 쓰더라도 몽고군의 출
동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삼별초는 아무리 반역의 무
리라고 그들은 고려의 백성
이라는 것은 잊을 수 없습니
다. 피는 같은 피만이 어울
리는 법이지 다른 피와는 섞
이지도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입니다. 그러기에 삼별초와
몽고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
고 어떠한 타협도 이루어지

지 못할 것입니다.
삼별초는 어디까지나 우리
의 힘으로 설유하고 우리와
타협해서 우리의 백성으로 돌
아오게 해서 그 막강의 기량
을 우리 국력의 바탕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김 방정의 말을 듣고
있던 원종이나 이 장용은 '과연
우리와 같은 생각이라'하고 7
월 십 일에는 원종은 이 장용과
김 방정을 데리고 배천(白川)
에 거동해서 몽가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몽가독의 휘하
군인들을 크게 위로하고는 '삼
별초 토벌에 대한 계획을 지면
시키라'고 당부를 하고 다시 8
월 일에는 세자(世子)를
몽고에 파견하여(배중손의 반
란상황)을 알리고 아울러 추석
절(秋夕節)을 정숙하는 절차를
취하였는데 이때 추밀원 부사
원부(元傅)와 상장군 송 송례
(宋松禮)와 그리고 중승(中丞)
홍문계(洪文系) 등이 이에 수
행하였다.

「지금 삼별초가 취하고 있는
행위는 완전히 반항이며 앞
으로 일어날 그들의 장란은
예기하기 어려울만치 두렵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삼별초가 두렵고 무서운 것
이 아니고 다만 그때에 일어
날 몽고의 대책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몽가독은 당장이
라도 삼별초를 섬멸할 준비
를 갖추고 있고, 만약에 그들
이 출동한다면 삼별초도 끝
까지 대항할 것이며, 몽고는
몽고대로 잔인한 보복의 조
치를 취할 것이니 전라도 일
대의 백성들은 살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
단을 쓰더라도 몽고군의 출
동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삼별초는 아무리 반역의 무
리라고 그들은 고려의 백성
이라는 것은 잊을 수 없습니
다. 피는 같은 피만이 어울
리는 법이지 다른 피와는 섞
이지도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입니다. 그러기에 삼별초와
몽고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
고 어떠한 타협도 이루어지

通常會費納入者 未確認の件

통상회비는 宗人의 의무이며 大宗會 운영자금의 一翼으로 귀중하

게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納入時에 記載事項이 미비하

여 처리하지 못하고 사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납우체국에 조회하고 그밖에 대

수단으로 탐구해서 정리하고 있오나 다음에 掲載한 件에 대

는 도저히 알수 없는 실정이어서 이를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조속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納入日 字 納入한 우체국 納入金額 派 住 所 姓 名

1988年 8月 5日 남 대 구 2,000원 不 明 明 不 明 明

1988年 8月 5日 당 진 2,000원 不 明 明 不 明 明

1988年 8月 11日 원 주 3,000원 提學公派 不 明 明

- 各種 生花
- 꽃 바구니
- 화환 · 화분



- 신속한 배달
- 저렴한 가격
- 宗親을 위한 特別奉仕

香 田 園 芸

代表 金 在 均

주소 :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783-3166 ~ 7 (自) 552-5327